

우리는 왜 돼지를 기르는가?

노영한
(본회 전무이사)

WTO체제가 출범한지 벌써 한달이 지나 갔다. 1월 24일 MMA물량 8,000톤이 입찰되는 등 변화를 실감한다.

우리는 왜 돼지를 기르는가? 돼지해를 맞이하여 한번쯤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된다.

돈을 벌기위해 돼지를 기르고, 양돈을 통해 값싸고 질좋은 돼지고기를 생산해서 수출도 하고 국내 소비자에 공급하므로서 국민 보건향상에도 이바지 하기 위한 것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다.

얼마전 국내 최대 재벌총수는 돼지를 기르는 목적이 나무에 거름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했고 또 어느 재벌은 솔직하게 부동산 투기를 위해서 돼지를 기른다고 고백한 사람도 있었다.

그저 돼지가 좋아서 돈이 벌리는지 안 벌리는지도 모르고 천직으로 알고 기른다는 양돈농가 등 돼지를 기르는 목적이 다양하다.

그러나 근대사회에서 직업관이 직업을 통한 사회봉사 일진대 양돈을 하면서도 생각하는 양돈이 필요하다.

돈벌기 위해서만 양돈을 한다면 분노처리나 출하전 휴약기간을 지킨다든가 하는 문제와는 거리가 멀게 된다.

우리 양돈인들이 4년전 부터 생산자를 위한 양돈에서 소비자를 위한 양돈으로 방향을 바꾼 것

도 양돈을 하는 목적이 돈 벌기 위한 양돈에서 양돈을 통한 사회기여로 변하기 시작하였음을 의미한다.

WTO체제가 출범되면서 축산물내 유해물질 잔류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국내 소비자들도 이제는 축산물의 안정성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

우리 정부는 '89년부터 시험사업으로 축산물내 잔류물질 조사를 시작해서 '91년에는 전국적인 조사를 하고 있다.

한때 이러한 시험자료가 과장 보도되어 소비자들에 국내산 축산물이 먹을 수 없는 것처럼 보도 되기도하여 소동을 일으킨 일도 있었다.

'93년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도 국내산 쇠고기 및 돼지고기에 대해 항생물질 잔류 조사를 하고 있으며 특히 돼지고기 수출과 함께 동물검역소에 항생제, 설파제, 농약 등 유해물질 잔류를 검사하는 부서가 생겨 최신 장비를 보유하고 대일본 수출돈육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와 수입 축산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아직도 수출돈육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결과가 만족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2년전만 해도 일본에 수출했던 돈육이 잔류물질 검사에서 불합격되어 되돌아 오는 등 양돈 후진국의 면모를 대내외에 드러내므로써 수출 길을

66

**이제 유해물질 잔류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도 감출 수도 없게 되었다.
여러 소비자를 위한 기관에서 국내산 축산물의
잔류물질 검사를 확대하고 언론 소비자단체들이 이의 결과
공표를 강력하게 요구해 오고 있기 때문에 양돈농가
보호 측면에서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미룰 수가 없게 되었다.**

99

더욱 어렵게 한 적도 있었다.

이제 유해물질 잔류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도 감출 수도 없게 되었다.

여러 소비자를 위한 기관에서 국내산 축산물의 잔류물질 검사를 확대하고 언론 소비자단체들이 이의 결과 공표를 강력하게 요구해 오고 있기 때문에 양돈농가 보호 측면에서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미룰 수가 없게 되었다.

두번째로 미국의 육류생산자단체가 한국의 축산물(주로 돼지고기)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결과를 공표할 것과 수입 돼지고기에 대한 엄격한 잔류물질 검사기준 적용에 대하여 미무역대표부(USTR)에 슈퍼301조에 의한 제한적 무역조치로 지정하여 줄 것을 청원하였고(94. 4. 8/5. 23) 한미 통상실무협약(TAG)에서 미국은 잔류검사 결과를 요구하여(95. 1. 19) 이제는 우리 국내산 돼지고기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가 발표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UR협상타결로 검역 국내검사의 동등성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검역행위를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보고 WTO에 제소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국내 축산물의 안정성 문제가 가축분뇨처리와 함께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협회에서는 지난 해 제2검정소가 주관하여 중

돈장에 대하여 많은 두수는 아니지만 종돈의 건강진단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러한 사업을 확대하여 종돈장에서부터 질병을 차단하여 양돈장의 청정화로 유해물질 잔류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생산비를 절감할 수 없으며 국내소비자에게 신도불이를 외칠 수도 없으며 수입 축산물과 경쟁해 볼 수도 없는 넘어야 할 벽이기에 새해에 우리는 이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하겠다.

휴약기간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한다는 의식개혁이 있어야 하겠고 사료회사, 동물약품업체도 이 문제는 공동운명체라는 인식속에서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이다.

휴약기간만 철저히 지키면 되는 것이지 동물약품 자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축농가들이 전문가의 지도에 따라 지켜 주어야 하겠다.

이벽을 넘을때 우리는 떳떳이 "소비자를 위한 양돈"이라는 구호를 떳떳하게 외칠 수 있고 우리 직업에 대한 보람과 긍지를 갖고 가업(家業)으로 물려주어도 자랑스럽게 될 것이다.

이것으로부터 세계화는 시작되고 있다.